

를 관찰함으로써 확진된 1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33 세 여자로서 6 개월간의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흉부 X-선 소견상 양측의 늑막삼출의 소견과 폐부종의 소견을 보였다. 입원 직후 호흡곤란이 점차 심해져 초음파심장촬영술을 시행한 결과 심장압전이 의심되었으며 삼출액 제거를 위해 심장천자술과 흉강천자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우측 쇄골 상부에 임파절이 촉진되어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실시하였다.

도말소견상 각각의 종양세포가 응집없이 흩어져있거나 드물게 작은 군집을 이루기도 하였다. 세포의 이형성이 매우 심하였고 비교적 세포질경계가 뚜렷하며 핵과 세포질 비가 낮고 난원형 혹은 원형의 핵은 약간 치우쳐 있었다. 특징적인 이분염성 핵이 관찰되었고 각각의 핵내에 하나의 뚜렷한 핵인이 보였다. 세포질은 풍부하였고 미세한 공포로 차있었으며 간혹 갈색의 색소가 관찰되었다. 흡인된 검체를 이용한 전자현미경적 검색에서 종양세포의 세포질내에서 다수의 3 기 또는 4 기의 멜라닌소체가 존재하였다.

5. 면포성 유선염의 세침흡인 소견

-2 예 보고-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FNAC) of Comedomastitis

-2 cases report-

변 희, 권계현,곽정자, 진소영, 이동화

순천향대학병원 해부병리과

면포성 유선염은 40 대 다산부에 호발하고 도관의 확장과 도관 주위 섬유화가 특징이며 촉진시 유방 암종과의 감별을 요하는 질환이다. 세침흡인시 특징적인 진한 크림모양의 치즈양 흡인물질이 관찰되고 도말 표본상, 부정형의 파편, 침상의 결정성 물질들의 배경에 균일한 도관상피 집락과 포말세포 및 다양한 염증세포들을 관찰함으로써 세포학적 진단이 가능하다. 저자들은 최근 세침흡인 검사로 진단된 면포성 유선염 2 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은 41 세 여자환자로 한 달전에 발견된 좌측 유방 내상부에 불규칙한 변연을 가진 비교적 크기가 큰 6×4 cm 의 유동형의 단단한 종괴로부터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한 결과 치약같은 끈끈한 물질이 천자되었다. 현미경 소견상 다수의 조직구, 다핵성 거대세포, 부정형의 분비성 물질과 드물게 도관상피세포의 집락이 관찰되며 절제된 탄력성의 종괴는 절단면상 회백색의 치약같은 물질로 채워진 다양한 크기의 확장된 낭성구조와 확장된 도관사이의 섬유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증례 2 는 29 세 여자환자로 2 주 전에 발견한 좌측 유방 중앙부에 불규칙한 변연을 가진 8×7 cm 의 종괴로부터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한 결과 현미경 소견상 다수의 급성 염증세포와 포식능을 가진 대식세포와 육아조직의 집락이 관찰되었으며, 절제된 종괴는 절단면상 경계가 불분명한 회백색의 조직으로서 현미경 소견상 면포성 유선염과 동반된 섬유낭포성 질환, 형질세포 유선염, 다수의 미세농양으로 진단하였다.